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2023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		
문의	전시 : 김윤서 학예사 t.031-201-8553 m.010-4780-1020		
	조권진 학예사 t.031-201-8546 m.010-3437-3020		
	취재 : 장효진 학예사 t.031-201-8545 m.010-2953-1023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3. 8. 10.	쪽수	총 9매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

Random Access Project 3.0



- 백남준의 실험적인 예술정신을 공유하는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을 2023년 8월 15일부터 시작
- 라재혁, 한재석, 오로민경, 원우리, 조호영, 그레이코드, 지인이 백남준아트센터 곳곳에서 작품을 선보여
- 미술관 뮤지엄숍, 카페테리아에서부터 전시장까지 각자 다른 시차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전시 형식 실험이자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감각을 제시

■ 전시개요

- 전시제목: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
- 기 간: 2023년 8월 15일 ~ 2023년 12월 3일
- 장 소: 백남준아트센터 뮤지엄숍 & 카페테리아, 랜덤 액세스 홀, 제2전시실
- 작 가: 라재혁, 한재석, 오로민경, 원우리, 조호영, 그레이코드·지인(1팀)
- 기 획: 김윤서, 조권진(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후 원: 신세계디에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트앤테크
- 협 력: LG 투명 OLED
- 주최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전시소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2023년 8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라재혁, 한재석, 오로민경, 원우리, 조호영, 그레이코드, 지인 여섯 명(팀)의 작가와 함께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을 선보인다.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는 백남준의 실험적인 예술정신을 공유하는 신진작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은 전시 형식의 실험이자 미술관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시도로 기획되었다. 백남준아트센터 곳곳에서 백남준의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동시대 작가들의 계주는 미술관 뮤지엄숍, 카페테리아에서부터 전시장 한쪽의 창가와 랜덤 액세스 홀까지 각자 다른 시차로 이어지며 전시의 틈새에 개입하거나 충돌하며 생성되었다가 사라진다.

‘랜덤 액세스’라는 프로젝트의 명칭은 백남준이 자신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1963)에서 선보였던 동명의 작품에서 비롯하였다. 〈랜덤 액세스〉는 마그네틱 오디오테이프를 릴케이스 밖으로 꺼내 벽에 임의로 붙이고, 관객이 마그네틱 재생헤드로 자유롭게 테이프를 긁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랜덤 액세스〉에서 찾을 수 있는 즉흥성, 비결정성, 상호작용, 참여 등을 키워드 삼아 백남준의 예술을 동시대 작가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 전시를 선보여왔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미술관이 백남준의 실험 정신과 현대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을 이어간다. 신예들이 제시하는 미술관의 활용

방식은 전시의 또 다른 이름들을 발견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의 시작을 여는 **라재혁**은 뮤지엄숍과 카페테리아에서 《나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서》(8.15-9.10)를 소리 설치 작품으로 선보인다. 이 전시에서는 일상 공간에서 작품 감상을 예상하지 않은 관객과 소리가 우연히 만나게 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작가가 설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소리는 주변 소음과 함께 존재하고 소음의 수준이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면 변하기 때문이다. 소음으로 소리 인지를 확장하는 ‘차폐(遮蔽)’라는 개념은 숨김을 통해서 다른 한쪽을 드러나게 하는 원리에 근거한다. 라재혁은 이 차폐 현상을 작곡의 재료로 삼아 음악과 일상의 경계에서 실험하고, 곡의 연주를 설계한 작곡자와 실제로 연주를 감상하는 관객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한재석은 백남준 특별전 《트랜스미션: 너에게 닿기를》이 전시 중인 제2전시실에 소리 설치 《센트럴 도그마》(8.31-9.24)로 개입한다. 스피커를 수집하고 제작하면서 음향 출력 장치와 소리의 물리적 성질을 탐구해온 작가는 스피커, 금속 막대, 전선, 전구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사물을 사용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전기 신호를 음파로 변환하는 스피커 장치는 평소 지각하기 어려운 피드백 고리를 빛으로, 진동으로 변환하여 전시 공간에 오롯이 드러낸다. 스피커에서 흐르는 저주파 소리는 전시 공간의 다른 요소들과 뒤엉키고 섞이듯 유명하며 빛을 내기도 하고 꺼뜨리기도 한다. 입력과 출력, 수신과 발신 등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서 피드백의 원리를 소리 설치로 구현하는 작가는 전시 공간에서 빛과 소리 요소를 극대화하는 라이브 퍼포먼스로 관객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소리를 듣는 경험에 주목해온 작가 **오로민경**은 미술관에서 보는 경험을 듣는 감각으로 전환하는 소리 설치 《빛을 전하는 시간》(9.19-12.3)을 선보인다. 푸른 뒷동산과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는 2층 전시실 창가에 놓인 것은 벤치와 헤드셋뿐이다. 헤드셋에서 들리는 몇 사람의 음성은 해 질 무렵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다른 몸의 친구들이 만나 시간의 풍경과 빛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이는 작가가 사전 워크숍으로 청취한 다양한 감상 방식의 총합이다. 작가는 미술관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한 작품 감상에 더해,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들에 주목하며 전시 뿐 아니라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남준의 대형 설치 《트랜스미션 타워》의 레이저와 네온, 그리고 자연의 빛에 대해 나누는 감각의 대화들을 들으며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작품과 풍경을 마주하기를 제안한다.

원우리의 전시 《소리 넓히기》(9.26-10.22)는 2층 전시장 안쪽 블랙박스에서 마주하게 된다. 원우리는 작곡을 위해 음(音)재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소리를 듣는 정도가 같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인공와우 사용자와 협업한 〈와우〉 연작을 시작하였다. 2019년 소리 인지 확장을 위한 연구 〈와우 로그〉, 소리 감정 연구를 담고 있는 〈와우 스텝〉, 그리고 난청인과 건청인의 교류를 위한 공연 〈와우 플로〉가 있다. 이번 전시는 인공와우 사용자의 청감 훈련 연구를 바탕으로 작곡한 음악을 재생하고 그 소리 데이터를 시각 데이터로 전환한 영상을 함께 선보인다. ‘소리 넓히기’는 난청인의 소리 인지 영역을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

작곡된 음악이다. 이 음악은 음의 높이, 거리, 길이와 같은 청감에 필요한 요소들로 선율을 이루고, 화성보다는 템포와 리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원우리는 인공와우 사용자와 나누었던 음악적 교류의 과정인 이 음악을 '소리 주머니'라는 스피커에 담아 전시장으로 가져온다.

조호영의 전시 《한 댕기의 땅》(9.26-10.22)은 미술관 1층 랜덤 액세스 홀에서 선보인다. 작가는 랜덤 액세스 홀의 바닥을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설치 구조물로 채워 넣는다. 장치된 바닥 위에 올라선 관객은 수직·수평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며 몸의 균형을 잡아갈 때 사용하지 않던 신체의 감각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관객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닥의 움직이는 힘과 합해 균형을 이룰 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이 된다. 즉, 한 댕기의 땅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운동 에너지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관계가 마치 하나의 생명과 같아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투입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으로도 활동하는 그레이코드(조태복)와 지인(정진희)은 백남준 특별전 《트랜스미션: 너에게 닿기를》이 전시 중인 제2전시실에 또 하나의 전시 《WIWR: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약하게 반향하는》(11.7-12.3)을 열어 응답한다. 제목이 지시하듯 '상호작용'에 주목한 소리 설치는 전시 공간에 놓인 여러 개의 스피커가 하나의 공통된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잔향으로 드러낸다. 이들의 작업에서는 전시 공간에 이미 들어찬 소음, 관객들이 나누는 대화, 발걸음 소리도 재료가 된다. 백남준의 비디오에서부터 전시장의 현장 소음까지 반영한 설치와 라이브 퍼포먼스는 청각뿐 아니라 시각, 몸의 경험에 관여하며 듣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자극하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곳곳에서 백남준의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동시대 작가들의 계주는 마치 소리의 성질처럼 벽과 층계를 넘어 퍼지고, 사라지고, 이어진다. 시각은 물론 청각, 몸으로 작품을 감각하기를 제안하는 작가들은 전시 공간은 물론 뮤지엄숍, 카페테리아, 로비의 랜덤 액세스 홀에서 관객과의 우연한 만남을 기다린다. 라재혁, 한재석, 오로민경, 원우리, 조호영, 그레이코드, 지인 여섯 명(팀)의 작가와 함께 12월 3일까지 이어가는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3.0》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 전시순서

Vol.	작가	전시명	일정	장소
1	라재혁	나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서	2023.8.15-9.10	1층 뮤지엄숍·카페
2	한재석	센트럴 도그마	2023.8.31-9.24	2층 전시실
		라이브 퍼포먼스	2023.9.23	
3	오로민경	빛을 전하는 시간	2023.9.19-12.3	2층 전시실
		라이브 퍼포먼스	2023.10.28	
4	원우리	소리 넓히기	2023.9.26-10.22	2층 블랙박스
5	조호영	한 땀기의 땅	2023.9.26-10.22	1층 랜덤 액세스 홀
6	그레이코드, 지인	WIWR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약하게 반향하는)	2023.11.7.-12.3	2층 전시실
		라이브 퍼포먼스	2023.12.2	

■ 작가소개



Vol 1. 라재혁 《나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서》



〈갭〉, 2019

작곡가 라재혁은 작곡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음악, 퍼포먼스, 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음악의 형식을 실험한다. 그는 일상과 예술의 교차 영역에서 관객의 참여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장치들을 배치하고 관객을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소통의 지대를 만들어낸다. 최근 라재혁은 숨김을 통해서 다른 한쪽을 드러나게 하는 차폐(遮蔽) 현상을 작곡의 재료로 삼아 음악과 일상의 경계에서 실험한다. 이를 통해서 곡의 연주를 설계한 작곡자와 실제로 연주를 감상하는 관객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독일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라재혁은 2016년부터 작곡가와 관객 사이 발생하는 감상의 틈을 줄이기 위해 소통을 다루는 <갭> 연작을 발표해 왔다. 또한 2018년 차폐 현상의 연구를 토대로 작곡한 <귀머거리>와 2019년과 2021년에 <야바위> 연작을 선보였다. 이외 주요 작품으로는 2018년 <조회수:3,144,-,->, 2020년 <길거리에 서서>, 2021년 <쥬테>, 2022년 <나눔> 등이 있다.



Vol 2. 한재석 《센트럴 도그마》



〈기라성〉, 2022

한재석은 스피커와 마이크 등 직접 수집하고 제작한 음향 장치를 사용해 조각과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음향 출력 장치와 소리의 성질을 탐구해온 작가의 창작은 전기 신호를 음파로 변환하는 장치, 스피커의 물리적 진동과 소리의 파동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한다. 입력과 출력, 수신과 발신 등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서 평소 지각하기 어려운 피드백 고리를 빛과 소리, 진동과 공명으로 공간에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2020년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내가 사는 피드》에 참여했으며, 2021년 OCI 미술관에서 개인전 《피드백커: 무한의 경계자》를 열었다. 최근에는 건축, 서커스, DJ, 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작업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Vol 3. 오로민경 《빛을 전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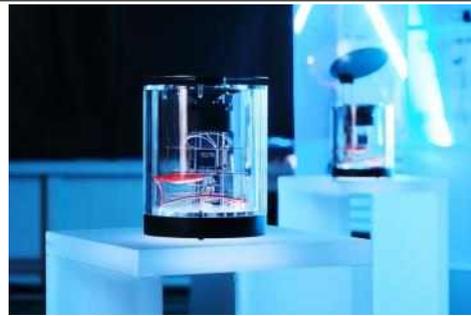


〈저무는 시간〉, 2021

오로민경은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소리의 풍경들을 마주하고 들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빛과 소리를 기반으로 작은 기억, 흔들리는 잎의 미묘한 떨림을 감각하는 시간에 집중하게 한다. 최근 몇 년간 장애, 난민, 이주, 분단이라는 주제를 만나며 한국이라는 지형 안에서 회복을 찾는 소리풍경을 만들어 왔다. 개인뿐 아니라 콜렉티브 활동으로 소리 설치, 퍼포먼스, 무대 연출 및 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협업으로 분단 감각에 대한 가상의 박물관 '분단이미지센터'를 공동 설립해,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가 되어 분단 사회의 표면과 내면을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소수자, 난민 문제에 주목하는 '작은빛' 콜렉티브 활동으로 예술 실천을 통해 사회 갈등을 직시하고 연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왔다. 대표작으로는 2021년 소리 퍼포먼스 〈돌, 빛, 결〉, 2022년 사물극 〈연약한 기록들의 춤〉 등이 있으며 2022년 개인전 《폐허에서 온 사랑》을 열었다.



Vol 4. 원우리 《소리 넓히기》



〈와우플로〉, 2022

작곡가 원우리는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서 교류 방법을 탐구한다. 원우리는 인간 혹은 대상의 데이터를 음악에서의 최소 성분인 정현파에 대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곡의 영감을 얻으며, 이를 음악, 퍼포먼스, 시각적 설치를 융합한 작업으로 구현한다. 2019년부터는 인공와우 사용자의 기계적 청감을 연구하며 난청인과 건청인이 음악으로 교류하는 실험을 작업으로 선보이고 있다. 2019년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를 시작으로 2020년 위사 페스티벌(WeSA Festival), 2022년 국제컴퓨터음악컨퍼런스(ICMC)등 다수의 공연에 참여하였고, 2021년 스톡홀름 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EMS)에 상주 작곡가로 선정되었다. 주요 전시로는 2019년 아트 콜라이더, 2020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2021년 인사미술공간, 2021-2022년 제로원 데이, 2023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이 있다.



Vol 5. 조호영 《한 뚝기의 땅》



《한 뚝기의 땅》, 2021

조호영은 사물(사람)간의 관계와 이를 지각하는 신체의 감각 작용을 이용하여 심리적, 물리적 거리의 균형을 탐구하고 이를 작품으로 선보인다. 일상의 물건들을 변형하고 이미 학습된 경험과 인지의 과정을 벗어나는 설치 환경을 만든 후 관객참여를 하나의 물리적 요소로 두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를 만든다. 작가는 이러한 물리적 에너지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다양한 관계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관계를 맺는 과정과 같음을 말한다. 2017년 린츠 라움슈프 갤러리에서 《사이 공간》을 시작으로 2018-2019년 제로원 데이, 2020년 아키타입서울, 2022년 성북예술창작터 등 전시에 참여하였다. 2018년 퍼블릭 아트 뉴이어로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 스페이스함, 2020년과 2023년 탈영역우정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Vol 6. 그레이코드, 지인 《WIWR》



《포에틱 캐논》, 2022

그레이코드, 지인은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아티스트 듀오이다. 공기의 진동, 소리의 음압 그리고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작품의 언어로 활용하여 비가시적이지만 실재하는 현상을 소리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만든다. 이들의 작업에서 주요한 재료인 스피커와 하드웨어 시스템은 악기로 기능하며 물리적 공간의 요소들과 공명한다. 작업을 매개로 감지되는 파장과 출렁임, 잔향은 청각뿐 아니라 시각, 몸의 경험에 관여하며 듣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자극한다. 2021년 개인전 《데이터 컴포지션》으로 출판한 서적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 헤르츠랩과 남서독일방송국(SWR) 주최 '기가-헤르츠 어워드'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일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AM) 인터랩, 체코 런치잇 페스티벌, 2019년 베를린 한국문화원, 2020년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등 국내외에서 전시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